

가죽 동전지갑

정읍시립박물관 문화가있는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지정종별] 사적 제166호
[지정일자] 1968년 12월 19일
[소재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우리나라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인재 양성, 그리고 선현들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자 향촌 자치 기구였어요.

무성서원은 2019년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8곳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이어지고있는 한국 성리학 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랍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자연 속 풍광을 떠올렸겠지만, 무성서원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즉,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써 신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들과 교감·소통하고자 했던 의지를 느낄 수 있답니다.

배향된 인물로는 최치원·신잠·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묵·김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경북 영주. 1543) 남계서원(경남 함양. 1552) 옥산서원(경북 경주. 1573) 도산서원(경북 안동. 1574)
필암서원(전남 장성. 1590) 도동서원(대구 달성. 1605) 병산서원(경북 안동. 1613) 무성서원(전북 정읍. 1615) 돈암서원(충남 논산. 1634)

망와는 한옥 지붕의 마루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기와입니다. 무성서원 현가루의 지붕에 사용된 이 망와는 뿔이 난 도깨비를 형상화하였는데, 눈썹·코·입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기와에 도깨비 얼굴을 새겨 장식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벽사辟邪'의 뜻이 담겨있답니다.





안녕? 나는 **무성이**라고해.
나는 정읍 무성서원 현가루의
지붕을 장식하는 기와야.
지금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나의 모습을 뽐내는 중이지!

준비물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재단된 가죽, 가죽공예용 실, 바늘, 열쇠고리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가위, 롱노우즈



무성아 우리 집안의 재물을 지켜줘

가죽 동전지갑



하나

바늘에 실을 꿰어 한쪽에 10cm 정도 남겨요



둘

가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 오른쪽 방향으로 홈질을 해요

시작점에서 실을 10cm 정도 남겨요



셋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왼쪽 방향으로 홈질을 해요



넷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가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마무리 지은 뒤, 실을 각각 매듭짓고 남은 실은 잘라요



다섯

롱노우즈를 이용하여 고리를 끼워요



완성

재물을 지켜줄 동전지갑 완성!